

교통 편의와 효율을 위해 새로운 교통체계 도입 시도

대구시 버스운영과
2023.10.4.

제주도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2023.10.31.



제주도 수산리, 태흥리에서 시범 운영되는 수요응답형 버스
출처: 제주도. (2023). "부르면 온다"수요응답형(DRT) 읍서버스 제주 누빈다. 10월 31일 보도자료.

대구시, 출퇴근 교통편 부족 지역에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시범 운영
대구광역시는 공급자 중심의 교통수단을 개선하기 위해 여객의 수요에 따라 승차차 지점과 운행구간을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이용자 중심의 공공 교통 수단'을 본격 도입·운영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초 선제적으로 MaaS*를 도입하는 등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적용을 준비해 왔으며, 10월부터 의료R&D지구 일원(동구 울암동, 상매동, 매여동)을 기점으로 DRT를 본격 운영하여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출퇴근에 이용되도록 하고 있다. 교통카드를 사용해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운임으로 탑승하며, 도시철도와 영천·경산 지역의 시내버스와 무료 환승도 적용된다.

시는 DRT 운영,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혁신도시 내 의료R&D지구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교통접근성 개선 DRT 시범사업과 DRT 운영 타당성 용역을 토대로 대구형 DRT 운영 모델을 구축하고 대중교통 부족 지역의 교통서비스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으로 교통취약지역 지원

이용자 수요에 따라 버스를 호출하는 제주 수요응답형(DRT) 플랫폼 서비스인 '읍서버스'가 정식 출범하였다. 수요응답형 읍서버스는 대중교통 수요가 적은 교통취약지역에 고정형 버스노선을 배치하는 대신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호출하는 시스템을 통해 노선, 정류소, 운행 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대중교통 서비스다.

도는 10월 31일 읍서버스 개통식을 개최하고 수산리, 태흥리에서 6개월간 시범 운영하게 된다. 이용객의 다양한 연령대를 고려해 스마트폰 앱 또는 콜센터를 통해 버스 호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 호출 시간은 오후 9시까지다. 이용 요금은 기존 공영버스 요금과 같으며 교통카드 사용 시 환승할인도 적용된다. 제주 교통복지카드 소지자는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도는 수요응답형 버스 시범 운영을 통해 읍·면 교통취약지역의 비효율 노선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체 대중교통수단의 가능성을 살피고, 모니터링 등으로 효과를 분석해 도내 전 지역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MaaS(Mobility as a Service): 하나의 앱으로 최적 이동 경로를 검색하고, 연결된 모든 교통수단을 한번에 예약·결제하여 목적지까지 이동을 통합 지원하는 모빌리티 서비스